

한(恨)의 정서에 내재된 이중 구속의 구조 - 자기애적 권력 역동을 중심으로

김동건*

국문초록

본고는 한(恨) 담론이 그 원인을 모호하게 남겨온 이유를 그 구조에서 찾는다. 기존 담론들은 각기 미학적·정신의학적·사회학적 층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중 구속이라는 관계 구조와 그것을 부과하는 가해자의 인격적 역동이라는 층위에서 한의 발생 경로와 메커니즘을 새롭게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 계열의 이론을 결합하였다. 첫째는 베이트슨의 이중 구속 이론으로, 애착과 자율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관계 구조다. 둘째는 트라우마의 신체화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연구다. 셋째는 자기애적 인격의 권력 역동에 관한 심리학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상사-부하, 스승-제자, 군주-신하 등의 관계에 적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애적 욕망을 충족하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상호호혜적 관계 윤리가 삼강(三綱)을 일방적 복종 체계로 경직화하는 과정에서, 이중 구속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한(恨)은 민족적 심미성의 정수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애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연구원, sky200106@aks.ac.kr

가해자에 의한 권력 역동의 구조 안에서 자율성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병리적 현상으로도 볼 수도 있다. 전통적 해한(解恨) 방식이 한의 세대적 연쇄를 끊어내지 못한 것은, 피해자를 치유하려 하면서 가해자는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 복종을 도덕으로 이념화한 체계가, 가해 구조를 가해로 인식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恨), 화병(火病), 이중 구속(Double Bind), 자기애적 권력 역동, 가스라이팅(Gaslighting)

1. 머리말

‘한(恨)’은 한국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주요 개념 중 하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한’ 항목을 집필한 국문학자 김열규는 한 또는 원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호하다고 하면서 한국적 한이 발생한 원인으로 역사적 불안과 위축, 유교 중심의 계층 의식, 남존여비 사상, 가학적 사대부와 과학적 민중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그 원인이 매우 다층적임을 시사한다.

기존 담론들은 크게 세 방향에서 한을 연구해 왔다. 미학적 담론은 한을 맺힘과 풀림의 역동으로 파악하며, 고통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민족적 심미성의 정수를 발견했다. 정신의학적 담론은 한을 화병(火病)의 심리적 배경으로 조명하며, 억압된 정서가 신체화되는 과정을 임상적으로 추적했다. 사회학적 담론은 한을 피지배 계층의 집단적 고통으로 해석하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외침(外侵)과 계급적 억압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 가지 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살피지 않은 층위가 있다. 한의 발생 조건을 설명할 때, 타인에 의한 삶의 파괴나 자율성의 좌절을 다루지만 정작 그 타인이 누구이며 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 것인지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해의 결과는 상세히 기록되었으나, 가해 주체의 병리는 시대 상황, 사회 구조, 문화적 풍토 등의 거시 층위에 가려졌다.

이 공백은 피해자에게 가슴에 맺힌, 원인을 알 수 없는 한을 풀기 위하여 전통적 해한(解恨)의 방식을 찾도록 한다. 굶·판소리·해학·삭임 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품은 한의 고통을 감당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맺힌 것을 조금 풀거나, 고통을 어떻게든 승화시키거나, 익살로 한바탕 웃어넘기거나,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기 나름의 효과가 있으나 어떤 방식도 한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된 관계의 구조에서 가해자는 조명하지 않는다. 가해 주체의 병리는 분석의 초점에서 밀려난 채 피해자의 치유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담론에서 가해 주체에 대한 공백을 채운다면 한의 발생 메커니즘은 어떻게 새롭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세 계열의 이론을 결합하였다. 첫째,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의 이중 구속(Double Bind) 이론으로 한의 형성을 추동하는 핵심적 관계 구조다.¹⁾ 둘째, 코헛(Heinz Kohut)·컨버그(Otto Kernberg) 등의 자기애적 인격 이론으로 타인에게 이중 구속을 전형적으로 부과하는 가해자의 인격 구조다.²⁾ 셋째 트라우마의 신체화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연구로, 포지스(Stephen Porges)의 다미주 이론, 반 데어 콜크(Bessel van der Kolk)의 트라우마 신체 각인 이론, 레빈(Peter Levine)의 미완성 방어 반응 이론을 통해 처리되지 못한 고통이 어떻게 신체에 물리적으로 고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³⁾

1) Gregory Bateson · Don D. Jackson · Jay Haley · John Weakland,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al Science』 1-4, 1956, 251~264쪽.

2)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Ott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Jason Aronson, 1975;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3) Stephen W. Porges, 『The Polyvagal Theory: Neurophysiological Foundations of Emotions, Attachment, Communication, and Self-Regulation』, W. W. Norton & Company, 2011; Bessel van der Kolk,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Viking, 2014; Peter A. Levine, 『In an Unspoken Voice: How

본고에서 활용하는 이론들은 임상 현장과 트라우마 연구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유력한 프레임이다. 다만 일부 주장은 학계 내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점을 밝힌다. 본고는 이들을 확정된 신경학적 사실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恨)이라는 정서가 형성되고 신체에 고착되어 화병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설득력 있고 정합적인 해석 도구로 판단하였기에 채택한 것이다.⁴⁾

본 연구는 한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기존 담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층위를 살피려는 것이다. 즉, 과도한 자기애적 인격을 지닌 가해자의 이중 구속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경계가 겪는 단계적 손상이 한(恨) 형성의 경로임을 밝힘으로써,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다. 본고가 주목하는 한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중 구속이며, 이는 애착과 자율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피해자의 뇌가 선택한 동결과 고착의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은 여러 인격 유형과 관계에서 작동할 수 있으나, 본고는 그중 자기애적 인격이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사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위계적 관계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작동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⁵⁾

the Body Releases Trauma and Restores Goodness』, North Atlantic Books, 2010.

- 4) 각 이론의 논쟁 지점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베이트슨의 이중 구속 이론은 본래 조현병의 발병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이어지는 유전학·신경생물학 연구를 통해 사실상 기각되었다. 다만 이중 구속이 모순적 의사소통 구조를 기술하는 분석 도구로서의 유효성은 가족치료·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본고는 후자의 의미에서 이중 구속 개념을 활용하였다. 코헷과 쾨버그의 자기애적 인격 이론은 임상 정신분석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두 이론은 자기에의 발생 기전과 치료 방향에서 대립하며 DSM-5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포지스의 다미주 이론은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그로스만(Paul Grossman)은 이 이론의 다섯 가지 기본 전제를 신경생리학적 근거에서 반박한 바 있다. 반 데어 쿨크와 레빈의 트라우마 신체화 이론은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만, 외상 기억의 신체적 저장이라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외상 기억 연구자들 사이에 방법론적 회의가 존재한다. 본고는 이 이론들을 확정된 신경학적·임상적 사실로 전제하지 않으며, 한(恨)이라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가 형성되고 신체화되는 과정을 해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합적 분석 모델로 채택하였다.
- 5)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가해자 유형은 인격 차원에서 강박성(OCPD)·경계성(BPD)·편집성(PPD) 인격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으며, 관계 구조 차원에서도 이념 매개적 가해형[이념을 충실히 집행하는 매개자]·방임형[부재를 통한 통제]·세대 간 외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서편제』, 『채식주의자』, 『한중록』, 『심청전』 등은 한 담론에서 이미 핵심적으로 다뤄져 온 텍스트로서, 각각 미학적 승화, 여성 주체성과 신체화, 화중의 역사적 기원, 효의 전형이라는 독법으로 읽혀왔다. 본고는 이 독법을 기반으로 이중 구속과 자기애적 권력 역동이라는 틀로 재독해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가해 주체의 공백을 텍스트 안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문헌적 서사를 넘어 속담과 같은 일상 언어 차원에서도 작동함을 확인한다. 이는 이중 구속의 구조가 특정 시기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패턴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2. 한(恨) 담론의 성과와 구조적 공백

한(恨)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김열규의 초기 작업 이래 반세기 가까이 축적되어 왔다. 본 장은 이 성과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네 단계인 정초기(1970~80년대), 분석적 정련기(1990년대), 학제적 확장기(2000년대), 재구성기(2010년대 이후)로 정리하였다.

우선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비애(悲哀)의 미론(美論)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는 조선의 백의(白衣)와 선(線)의 가냘픈 미감에서 숙명적으로 짙어진 민족적 비극이 빚어낸 숭고한 예술성을 발견했다.⁶⁾ 식민지 시기의 이와 같은 미학적 시선은 이후 한국학의 한 담론이 한을 미적 승화의 대상으로 다루는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 담론은 그 출발에서 야나기의 미학적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은 후술할 가해 주체의 부재라는 구조적 공백의 원인이 된다.

한 담론이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정립된 것은 김열규에 의해서다.⁷⁾ 그는 신화·민속·문학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한을 한국 문화의

상 전이형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본고는 이 가운데 한국 사회의 위계적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작동해 온 자기애적 인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6)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朝鮮とその藝術(조선과 그 예술)』, 1922.

7) 김열규, 『恨脈怨流』, 주우사, 1981.

핵심 정서적 범주로 규명했고, 한국 학계가 한을 체계적 분석 대상으로 다루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시기 한 담론의 또 다른 흐름은 민중신학에서 형성되었다. 서남동·안병무 등은 한을 억압적 사회 구조가 민중에게 가한 폭력의 집단적 응축으로 이해하며, 이를 해방신학적 에너지로 재해석했다.⁸⁾ 이 흐름은 한의 사회구조적 차원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원적·언어학적 정초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恨)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통로는 글자 자체다. 한(恨)은 마음 심(心)과 그칠 간(艮)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금철의 어원 분석에 따르면, 간(艮)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외부의 저항에 부딪혀 굴절되고 안으로 침잠된 상태를 의미한다.⁹⁾ 즉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와 궤를 달리하며, 어원적 차원에서부터 외부의 힘에 의해 좌절된 의지의 내면화라는 구조를 담고 있다. 그것은 주체의 자율적 의지가 마음속 응어리나 나무의 웅이와 같은 형태로 내면화된 고착 상태이다.

1990년대는 한 담론이 방법론적으로 정련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분석적 정점은 천이두의 『한의 구조 연구』(1993)다.¹⁰⁾ 천이두는 한과 결합하는 일상적 서술어인 맺힌다, 삭힌다, 푼다 등에 한의 형성과 해소의 과정이 압축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그는 자동사 삭다와 타동사 삭이다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후자에서 피해자의 주체적 의지를 읽었고, 한을 맺힘과 풀림의 이원론적 역동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한국 문학의 구조적 원리로 정립했다. 맺힌 한이 살풀이나 판소리를 통해 신명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분석의 중심이다. 이 연구는 한의 문학적·예술적 기능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정·멋 등의 풍부한 미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같은 시기 정신의학과 사회심리학에서도 한 담론이 본격화된다. 민성길은 한을 한국 고유의 문화결합증후군인 화병(火病)의 심리적 배경으로

8)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안병무,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한국신학연구소, 1989.

9) 정금철, 「恨의 情緒와 詩學—金素月·徐廷柱의 詩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9집, 1986.

10)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주목했고, 억울한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삭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인 가슴의 답답함, 치밀어 오름, 불면, 소화불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화병의 진단 기준을 정립했다.¹¹⁾ 이는 화병이 DSM-IV에 한국 고유의 증후군으로 등재되는 학술적 기반이 되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김종주가 한의 정신분석적 분석을 시도하였고,¹²⁾ 사회심리학에서는 최상진이 한의 발생 원인을 부당한 차별, 상대적 결핍, 자기 자신의 실수로 분류하는 등,¹³⁾ 학문 영역별로 한 분석의 방법론이 정립되었다.

2000년대에 한 담론은 인지언어학·문화심리학 등으로 학제적 확장을 이룬다. 인지언어학자 방영심·이정화는 한국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한을 두 가지 은유로 개념화하였음을 밝혔다.¹⁴⁾ 하나는 실의 은유 [한이 얹히고설키다, 맺힌 한을 풀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릇 속의 물질 은유 [한이 고이다, 한이 스미다, 응어리지다]이다. 이 모두 밖으로 발산되지 못한 감정이 실타래처럼 얹히고설키거나 액체처럼 몸속에 고이다가 고체로 응고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이 형용사적 감정 상태가 아니라 신체 안에 물리적으로 자리 잡은 명사적 실체로 인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인지언어학적 분석은 1단계 정금철의 어원 분석과 2단계 천이두의 서술어 분석을 언어 사용의 실증적 데이터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문화심리학 영역에서 한민의 작업은 한과 신명을 한국 문화의 정서적 짝으로 다루며 이 시기 한 담론의 학제적 확장을 대표한다.¹⁵⁾

2010년대 이후 한 담론은 새로운 이론적 자원과 결합하면서 재구성기로 진입한다. 이병혁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한의 생성 기제를 자기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¹⁶⁾ 다만 이 연구에서 가리키는 자기애는 피해자 자신의 자아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라캉적 용어로

11) 민성길, 「화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집, 1991.

12) 김종주, 「한의 정신분석」, 『코리안어마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1998.

13) 최상진,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심리학회, 1991.

14) 방영심·이정화, 「한국어에 나타나는 恨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의 미학』 22집, 2007.

15) 한민, 『신명의 심리』, 21세기북스, 2009.

16) 이병혁,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한(恨)」, 『사회와 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사용되었으며, 가해 주체의 자기에는 분석 대상이 아니다.

김주휘는 니체의 르상티망(Ressentiment)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한의 위치를 서양 정서 담론과의 비교 안에서 정립하였다.¹⁷⁾ 르상티망이 약자의 복수심이 내면으로 굴절된 상태라면, 한은 신체 내부에서 욕구가 막혀 응어리지고 물리적 통증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더 깊은 신체적 차원을 가진다. 이 비교는 한 담론이 서구 이론과의 대화 안에서 자기 자리를 정립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검토한 한 담론은 각기 다른 방법론으로 한에 접근했지만,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보인다. 피해자의 모습은 상세히 기록되지만, 가해의 주체와 그 병리는 시대·사회 구조·한국 문화의 특수성이라는 추상이 뒤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공백은 담론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김열규는 한을 민족적 정서로, 민중신학은 민중의 집단적 응축으로 다룸으로써 가해 주체를 추상적 거대 구조로 환원했다. 분석적 정련기의 천이두·민성길은 한의 내적 동학과 신체 증상에 집중하면서 가해 주체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학제적 확장기의 인지언어학·문화심리학은 한을 언어적·사회적 현상으로 객관화하면서 그 발생에 대한 가해 주체의 인격적 책임을 다루지 않았다. 재구성기의 라캉과 니체를 통한 접근에서도 가해 주체의 병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특히 사회구조적 담론의 경우, 그 강점이 곧 한계로 작용한다. 한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아니라 구조적 억압에서 찾는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억압의 원인을 계급·민족·가부장제라는 거대 구조로 설명하는 순간, 그 구조 안에서 실제로 타인을 억압한 구체적 인격은 더욱 깊이 숨어들고, 문제의 원인은 모호해진다. 일상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인격적 가해의 현상이 거대 담론의 그늘에 가려져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이 공백은 자연스럽게 해한(解恨)의 방식 또한 가해 주체의 병리를 비

17) 김주휘, 「르상티망(Ressentiment)과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대한 재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0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껴가게 만든다. 굶·판소리·해학·삭임 등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는 법을 제공할 뿐, 한이 발생하는 관계의 구조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 온 층위는, 이중 구속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탈하는 가해 주체의 병리적 자기애(Narcissism)와 그것이 피해자의 신경계에 가하는 손상이라는 두 지점이다. 본고는 이 층위를 기존 담론에 추가함으로써 한의 발생 경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3. 한(恨)의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기제

본고는 한(恨)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중 구속(Double Bind) 관계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계의 단계적 후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한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5단계 모델은 확정된 생리학적 경로가 아니라, 한과 화병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채택한 해석적 모형이다.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이 1956년 정립한 이중 구속은 두 가지 상충하는 명령이 동시에 부과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처벌받으며 그 상황에서 이탈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¹⁸⁾ 이러한 관계 구조가

18) Gregory Bateson · Don D. Jackson · Jay Haley · John Weakland,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al Science』 1-4, 1956, 251~264쪽, 그레고리 베이트슨, 『마음의 생태학』, 박대식 옮김, 책세상, 2006.

베이트슨 등이 1956년 논문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에서 제시한 이중 구속이 조현병의 발병 기전이라는 가설은, 조현병 연구의 진전과 함께 기각되었다. 쌍둥이·가족 연구를 통한 유전적 소인의 입증, 도파민 가설을 비롯한 신경전달물질 이상의 발견, 신경영상학을 통한 뇌 구조 변화의 확인 등이 축적되면서 조현병은 복합적 신경발달 장애로 이해되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입장이다. 또한 1950~60년대의 조현병 유발 가족 가설은 어머니에 대한 부담한 책임 전가라는 윤리적 문제로도 비판되었다. 그럼에도 베이트슨의 1956년 논문은 가족 체계 안의 의사소통 패턴을 정신병리의 분석 단위로 도입한 효시로 평가되며, 가족치료라는 새로운 임상 분야의 출발점이 되었다. 베이트슨이 분리해낸 이중 구속이라는 구조는 모순적 의사소통의 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가족치료·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사회언어학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이중 구속 개념 또한 관계 구조의 분석 도구로서 한정한다.

만성화되면 피해자의 신경계는 점차 항복 상태로 후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잔류가 신체에 고착된다. 본 장은 이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한과 화병의 관계를 신경생물학적 구조 내에서 재구성한다.

이중 구속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그 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애착의 유지와 자율성의 행사라는 두 기본 욕구가 상호 배타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피해자는 자율성에 손상을 입는 탓에 갇힌다.

이 조건들을 전형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인격 구조가 자기애적 인격(Narcissistic Personality)이다. 자기애적 인격이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유일한 인격 유형은 아니지만, 그 구조적 경향성과 한국 사회의 위계적 관계에서의 편재성이라는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형태다. 자기애적 인격의 작동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헛(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과 쾨버그(Otto Kernberg)의 대상관계 이론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코헛의 자기심리학이 정립한 핵심 개념은 자기대상(Selfobject)이다.¹⁹⁾ 자기대상이란 자신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자아의 기능적 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곧 병리적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 즉 자기애적 공

19)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Heinz Kohut,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7, 1972, 360~400쪽.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임상심리학과 일반 교양서 양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건강한 수준의 자기애는 자존감 형성과 인격 발달의 필수적 토대이며, 자기애 자체가 병리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격장애 수준의 병리적 자기애로, 타인을 자아의 기능적 연장으로 도구화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자율성을 침탈하는 인격 구조를 가리킨다. 한편 자기애적 인격에 대한 정신분석학 내 이론은 코헛과 쾨버그의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코헛이 자기애를 발달 과정의 공감적 결핍으로 보고 공감적 회복을 치료 방향으로 제시한다면, 쾨버그는 자기애를 구조화된 공격적 인격으로 보고 그 방어 기제와 가해성에 주목한다. 본고는 한(恨)의 발생 회로에서 가해 주체의 병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므로, 두 이론 가운데 쾨버그의 분석틀에 더 가까운 입장에서 자기애 개념을 활용한다.

급원에 불과하다. 코헛은 자기에적 인격이 자신의 우월성을 위협받을 때 표출하는 극심한 자기에적 분노를 분석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자아의 죽음으로 인지하여 보복적 공격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한편 컨버그는 병적 나르시시즘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여, 과대 자기(Grandiose Self)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인격과 그 안에 내장된 병적 공격성을 분석했다.²⁰⁾

이 역동의 구조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욕구와 확신을 보편적 진리로 주장하고, 상대방이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신의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조건부 애착 관계에 묶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유한 욕구와 의지는 지속적으로 무시된다.

이중 구속 상황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해자의 핵심 기술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다.²¹⁾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지각(知覺)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이다. 나르시시스트 가해자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자아의 죽음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현실과 상충하는 지점에서도 끊임없이 피해자의 지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가해자 자신의 논리에 순종할 것을 종용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는 지각의 무효화, “내가 언제 그런

20) Ott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Jason Aronson, 1975.

21) Victor Calef · Edward M. Weinshel, 「Some Clinical Consequences of Introjection: Gaslighting」,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50-1, 1981, 44-66쪽. 본문의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용어는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1938년 희곡 『가스등(Gas Light)]과 이를 각색한 1944년 미국 영화(조지 큐커George Cukor 감독, 잉그리드 버그먼Ingrid Bergman 주연)에서 유래한다. 빅토리아 시대 런던을 배경으로, 남편은 보석을 손에 넣기 위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가스등의 밝기를 조작하면서 ‘등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물건을 옮겨놓은 뒤, ‘아내가 옮겨놓고 잊은 것’이라 비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 아내가 자기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피해자의 현실 지각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가해자의 기법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했고, 이후 일상어에서 피해자의 지각을 무효화하는 심리적 조작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했다. Calef와 Weinshel(1981)이 이를 정신분석학적 임상 술어로 본격 수용한 이래, 가스라이팅은 내사(introjection)를 통한 자아 왜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말을 했어?”라는 현실 부정, “네가 문제지,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라는 책임 전가 등이 반복된다. 가해자의 요구에 순응하면 자율적 자아가 소거되고, 저항하면 생존의 토대인 애착 관계가 파괴된다. 이 교착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경계는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가해자의 논리를 억지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봉합이 어떻게 신체에 각인되는가는 신경생물학적 연구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부정하게 될 때 신경계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상태에 빠진다. ‘나는 분명 억울한데, 그것이 내 예민함 때문인가?’라는 자기 의심이 반복되면 편도체(Amygdala)는 지속적으로 위협 신호를 발하고 코르티솔(Cortisol) 분비가 만성적으로 증가한다. 이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세 차원에서 신체적 귀결을 산출한다.

대뇌피질 차원에서 반 데어 콜크(Bessel van der Kolk)의 연구는 이 과정이 해마(Hippocampus)의 기억 처리 기능에 영향을 주고 전두엽의 합리적 판단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로를 제시했다.²²⁾ 그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언어화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한다.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한의 특성 중 하나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한국어가 한을 맺힘, 응어리, 웅이와 같은 명사적 실체로 형상화해 온 어휘적 직관은 이 신경학적 해석과 만난다. 한은 형용사적 감정 상태가 아니라 언어 이전의 신체적 잔류물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어휘가 신체적 명사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신경 차원에서는 19세기 신경학자 잭슨(John Hughlings Jackson)이 해체(dissolution) 가설로 제시한 신경계의 위계적 반응 패턴이 결정적이다.²³⁾ 잭슨은 신경계가 위협 또는 손상에 직면할 때 발달의 역순으로

22) Bessel A. van der Kolk, 「The Body Keeps the Score: Memory and the Evolving Psychobiology of Posttraumatic Stres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5, 1994.

23) John Hughlings Jackson, 「The Croonian Lectures on Evolution and Dissolution of the Nervous System」, 『British Medical Journal』, 1884.

후퇴한다는 가설을 정립했고, 이 모델은 현대 트라우마 이론, 특히 포지스(Stephen Porges)의 다미주 이론과 레빈(Peter Levine)의 미완성 방어 반응 모델에서 일관되게 재확인되었다.²⁴⁾ 위협에 처한 신경계는 먼저 사회적 관여(대화와 협상)로 대응하려 하고, 이것이 차단되면 동원(분노 또는 도주)으로 이행하며, 그마저 차단되면 부동화(freeze)로 후퇴한다. 대화로 풀 수도, 분노로 맞설 수도, 도주로 벗어날 수도 없을 때, 신경계에 남는 유일한 대안이 부동화다. 이 부동화 상태는 외부적으로는 순응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감각이 마비되고 감정이 해리되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는 능력마저 억제되는 것이다.

에너지 차원에서 레빈은 이 동결 상태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존 에너지가 신체 안에 잔류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²⁵⁾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존의 에너지는 싸움이나 도주를 통해 외부로 방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성적 이중 구속 상황에서는 에너지의 방출이 지속적으로 차단된다.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는 유기체 내부로 굴절되어 특정 장기와 근육계에 만성적 긴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물리적인 응어리를 형성한다. 한국어가 한을 응어리로 형상화해 온 어휘적 직관이 이 신경생리학적 사실과 만난다.

위의 세 가지 차원을 관통하는 보다 근본적인 통찰은 신경계가 애착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생물학적 기본 욕구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

24) Stephen W. Porges, 『The Polyvagal Theory』, W. W. Norton & Company, 2011; Peter A. Levine, 『In an Unspoken Voice』, North Atlantic Books, 2010; Paul Grossman, 「Fundamental challenges and likely refutations of the five basic premises of the polyvagal theory」, 『Biological Psychology』 180, 2023.

다미주 이론은 트라우마 임상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이론적 프레임이지만, 그 신경해부학적·비교생리학적 전제, 특히 복측 미주신경 회로의 포유류 고유성 주장은 비교생리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실증적 비판받아왔다. Grossman(2023)은 다미주 이론의 다섯 가지 기본 전제 모두가 척추동물 자율신경계 진화·신경해부학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 합의에서 지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며, 다미주 이론을 만성적 이중 구속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경계 반응 양상을 임상적으로 기술하는 종합적인 해석 모델로 채택하였다.

25) Peter A. Levine, 『In an Unspoken Voice: How the Body Releases Trauma and Restores Goodness』, North Atlantic Books, 2010.

이다.²⁶⁾ 사회적 포유류인 인간에게 타인과의 연결과 공동체의 소속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동시에 자기 삶을 결정하고 외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기효능감은 삶의 기본적인 동력이다. 건강한 관계에서 이 두 욕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자기애적 권력자가 지배하는 관계에서 이 균형은 파괴된다. 가해자가 애착을 불모로 자율성을 억압할 때, 피해자의 신경계는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일치(Incoherence) 상태에 직면하고,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성의 회로를 켜다온시킨다. 그 결과 통합 조절계(자율신경계·내분비계·면역계)는 방향성을 잃고 실조(Dysregulation) 상태로 이행한다. 모든 에너지는 시스템의 최소 유지에만 소모되고, 성장이나 창조를 위한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한을 품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해석이다. 본고는 이상의 이론적 자원을 통합하여 한(恨)과 화병(火病)의 관계를 아래의 표와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하였다. 다만 이는 인과적 단계의 실증이 아니라, 해석적 도식임을 밝힌다.

〈표 1〉 한(恨)과 화병(火病)의 발생 메커니즘

단계	차원	핵심사건	내용
1	관계구조	이중 구속의 부과	자기애적 가해자가 애착과 자율성을 상호 배타적으로 부과
2	인지,정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지각의 파괴	편도체 과활성화, 코르티솔 만성 분비
3	자율신경	신경계의 항복	사회적 관여→동원→부동화의 단계적 후퇴
4	신체	에너지의 고착	미완성 방어 반응의 잔류가 한의 응어리로 형성
5	통합조절계	통합 조절계의 실조	자율신경계·내분비계·면역계의 조화 붕괴[화병]

이 구조 내에서 한(恨)은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위치하는 정서적·신체

26) 게랄트 휘터 저, 이지운 옮김,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매일경제신문사, 2021. 게랄트 휘터는 애착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욕구를 버 일관성을 위한 두 기동으로 정식화하였다.

적 상태다. 신경계가 이미 항복한 후, 외부로 방출되지 못한 정서가 신체 안에 응어리로 굳어가며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맺힘이다. 한을 맺히다, 품다, 삭이다, 풀다와 같은 공간적·물질적 동사로 표현해 온 까닭이 여기 있다. 이 동사들은 3~4단계 사이의 신체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 정서의 오랜 직관은, 한이 마음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신체의 사건임을 보여준다. 화병(火病)은 이 맺힘이 5단계에 이르러 통합 조절계의 실조로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슴 답답함, 치밀어 오름, 불면, 소화 불량, 만성 통증과 같은 화병의 신체 증상은 자율신경계·내분비계·면역계가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하는 통합 조절계의 실조를 나타낸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한의 세대 간 반복 구조도 설명된다. 페렌치(Sándor Ferenczi)가 정립하고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가 발전시킨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개념에 따르면,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한 피해자는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⁷⁾ “내가 지독한 고생을 겪었으니, 너도 당연히 견뎌야 한다.”는 논리는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에 걸쳐 입은 자기애적 손상을 상대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권력 역동의 발현이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해 온 며느리가 세월이 흘러 더 가혹한 시어머니가 되는 한국 사회의 익숙한 패턴인 한의 세대적 연쇄가 이 기제로 설명된다.

이 연쇄의 비극적 측면은, 한을 경험한 사람이 훗날 한을 재생산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다. 4단계에서 신체에 고착된 응어리는 5단계에서 화병으로 발현될 뿐 아니라, 공격자 동일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행위로 발현된다. 곧, 한은 내부로 응어리지면서 동시에 외부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연쇄가 한국 사회에서 한이 수 세대에 걸쳐 누적·증폭되어 온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지금까지 가해자의 병리적 인격이 어떻게 피해자의 신경계를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다시 다음 세대의 가해 구조로 재

27) Anna Freud, 『Das Ich und die Abwehrmechanismen』, Internationaler Psychoanalytischer Verlag, 1936; 안나 프로이트, 『자아와 방어기제』, 김진중 옮김, 열린책들, 2015.

생산되는지 살펴보았다. 화병은 문화만의 산물도, 관계만의 산물도 아니다. 문화적 규범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매뉴얼 위에서 특정 관계 안의 자기애적 권력 역동이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그 반복이 세대 간 연쇄를 통해 누적된 결과로 이해될 때, 한과 화병의 발생 경로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을 풀고 화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정서적 위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도적 매뉴얼의 해체, 관계의 가해성에 대한 인식, 개인의 신경계 차원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세 차원의 작업이 동시에 요구된다.

4. 이중 구속의 작동, “눈이 보이면 마음이 흩어진다”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가해 주체는 자기애적 인격이라는 차원과 이념 매개적 가해라는 구조의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본 장은 이 가운데 자기애적 인격이 부과하는 이중 구속이 부모-자녀, 상사-부하, 스승-제자, 군주-신하, 예술가-도구화된 타자와 같이 다양한 관계 형식 내에서 어떻게 변주되는가를 확인한다. 이 다섯 가지 관계 형식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관계 우위와 탈출 불가능성이라는 조건을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연·제도·직장·지식·신분·예술적 권위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탈출을 봉쇄하며, 그 안에서 이중 구속의 작동 조건을 갖춘다. 본 장의 분석 대상은 텍스트가 기록하는 관계 역동의 구조이며, 작품 속 인물이나 역사 인물에 대해 임상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작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의미화되어 온 담론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임권택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청준의 『서편제』 원작을 읽고 “굉장히 거북했다, 이거는 참 지나치다.”고 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화 이후 대중과 평단의 수용 담론은 이를 예술적 득음(得音)의 서사로 전환해 왔다. 창작자가 폭력으로 직시한 것을 미학적 서사로 흡수하는 담론적 작동이 본 장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중 구속 조건에서 자기에적 권력 역동이 미학적 언어와 어떻게 맞물려 왔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이청준의 소설과 그것을 영화화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1993)다.²⁸⁾ 유봉에게 송화는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예술적 완성, 즉 득음(得音)을 이루어 줄 자기에적 공급원이다. 유봉은 송화에게, “눈이 보이면 마음이 흩어진다.”면서 부자(父子)를 달여 먹여 눈을 멀게 한다. “네 소리에는 아직 원망만 있지 한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욕망을 피해자를 위한 헌신으로 포장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 구조다. 고통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명분은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다.

송화는 명확한 이중 구속에 직면해 있다. 아버지-딸이자 스승-제자라는 이중의 애착 관계에다가, 시력마저 잃게 되면서 관계로부터의 탈출이 더욱 불가능해졌다. 소리를 지키려면 아버지의 논리에 순응해야 하고, 자율성을 지키면 유일한 애착 관계가 파괴된다. 송화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 탈출 불가능한 구조 안에서 송화의 신경계는 동결 반응으로 후퇴한다. 눈이 멀어버린 송화는 더욱 소리에 정진한다. 한의 미학적 승화로 입혀 온 이 장면은, 신경생물학적으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유봉은 죽었지만 그의 논리는 송화의 내면에 파수꾼처럼 남아 그녀의 자율성을 통제한다.

더 큰 문제는 작품의 수용 양상에 있다. 대중이 『서편제』를 한의 미학으로 칭송할 때, 유봉의 행위를 예술적 헌신으로 재해석하는 집단적 가스라이팅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이 예술적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그 고통을 만든 권력 구조는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의 공통된 언어 전략이다. 유봉의 “소리를 위해서다”, 부모의 “모두 너를 위해서야”, 상사의 “너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야”, 스승의 “네 학문을 위해서다.” 같은 일련의 말들은 표면적으로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가해자는 자신의 자기에적 욕망을 실현하는 행위를 피해자를 위한 헌신으로 포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28) 이청준, 『서편제』, 문학과지성사, 2013.; 임권택 감독, 『서편제』, 태흥영화사, 1993.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를 차단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기에적 권력 역동은 매우 일찍 작동하며, 그 흔적이 자녀의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²⁹⁾는 이 역동의 신체적 귀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다. 기존의 한강 비평은 영혜의 변모를 여성성과 신체의 정치학, 환상과 식물성의 미학, 욕망의 우회로로서의 거식 등의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³⁰⁾ 이 비평적 자장은 영혜의 변모를 주체적 저항으로 읽거나 미학적 변용으로 읽는 두 갈래로 대별된다. 이중 구속 관계 내의 자기에적 권력 역동의 조건으로 살펴본다면, 영혜의 변모는 주체적 저항도 미학적 변용도 아닌 자율성을 박탈당한 신경계가 도달하는 생물학적 항복으로 분석된다.

영혜의 채식 선언은 갑작스러운 일탈이 아니다.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오랫동안 억눌린 욕구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표면화된 것이다. 영혜에게 부과된 이중 구속은 가정 안에서 중첩된다. 가부장적 아버지는 딸을 자신의 기준에 순응해야 할 존재로 다루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 도구로 취급한다.

결정적 장면은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영혜의 입에 강제로 고기를 밀어 넣고 뺨을 때리는 대목이다. 이 행위는 규범의 강요이기 이전에 딸의 신체적 자율성을 자신의 권위로 덮는 행위다. 영혜가 칼로 손목을 그어 저항하는 것, 그리고 이후 채식을 하고, 옷을 벗고, 말을 줄이고, 결국 식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율성의 회복이 아니라 자율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탈출이다. 나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신경계 항복의 또 다른 형태다. 인간이기를 멈추면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아도 된다는 최후의 생존 논리다.

시겔(Daniel Siegel)의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에 따르면, 영유아기의 애착 경험은 뇌의 물리적 구조를 형성한다.³¹⁾ 조건부 인정이 반복되는 환

29)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30) 정미숙 외 4명, 『한강,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 더스토리, 2016.

31) Daniel J. Siegel, 『The Developing Mind: How Relationships and the Brain Interact to Shape Who We Are』, 2nd ed., Guilford Press, 2012.

경에서는 자율적 신경망 자체가 발달하지 못한다. 자기에적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의 욕구가 아니라 부모의 욕구를 실현하는 행위를 헌신으로 포장하며 가스라이팅한다.

이 역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형태가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 문화다.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려는 집착은 표면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결핍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자기에적 확장의 욕망이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때만 인정받는 조건부 애착 구조 안에서, 자녀의 자율적 신경망은 반복적으로 억압된다.

반 데어 콜크의 연구는 만성적인 조건부 인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로 성장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 마비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³²⁾ 그리고 자기에적 부모 아래에서 자율성을 억압당하며 성장한 자녀는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동일한 조건부 인정 구조를 재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의 세대적 계승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자기에적 권력 역동은 제도적 위계가 이중 구속의 구조를 제공하는 곳에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상사-부하 관계에서 자기에적 상사는 자신이 제시하는 업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부하 직원의 독립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무효화한다. 이때 가해자가 구사하는 언어는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가스라이팅이다. 한쪽은 “이 정도밖에 못 해?”와 같이 부하 직원의 능력을 깎아내려 평가의 기준을 가해자에게 의탁하게 만드는 비하이고, 다른 한쪽은 “너니까 내가 이만큼 챙겨주는 거야.”처럼 억압을 헌신으로 위장하는 미화이다. 이 두 언어가 교차할 때 부하 직원은 자신이 억압받고 있는 것인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부하 직원이 직면하는 이중 구속은 상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팀

32) Bessel van der Kolk,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Viking, 2014.

워크를 해치며, 상사에게 대든다는 공격을 받아 조직 내 생존이 위협받는 식이다. 이의 없이 따르면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창의적 자율성이 소거된다. 이 구조 안에서 신경계는 동결 반응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한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부적으로 마비되는 상태가 지속된다.

스승-제자 관계에서, 학문 공동체의 지식 전수라는 명분은 자기애적 권력 역동이 작동하기 가장 쉬운 조건이 된다. 자기애적 스승은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절대화하고 제자의 독립적 사유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학계가 얼마나 좁은 줄 아니?”와 같은 말은 학문적 조언이 아니라, 피해자의 도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이중 구속의 탈출구 자체를 봉쇄하는 위협이다.

이 관계에서 이중 구속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자신만의 지적 탐구심과 독립적 연구를 추구하면 학위와 경력이 위협받는다. 그렇다고 교수의 연구 방향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면 지식인으로서의 자아가 소거된다. 이 구조 안에서 대학원생의 신경계는 자신의 지적 욕구를 억압하고 교수의 판단에 동조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학문적 순종이 생존 전략이 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한은 억울함이나 원통함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욕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감각 마비의 형태를 띤다. 이 유형의 가스라이팅이 인식되기 어려운 이유는, 제자의 학문을 위한다는 명분이 지식의 권위라는 외피를 두르기 때문이다. 지적 억압이 지적 지도의 언어로 수행될 때, 피해자는 자신의 지적 자율성이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자기애적 권력 역동은 부자(父子)이자 군신(君臣) 관계를 동시에 기록한 『한중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중록』에서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이중 구속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시기가 대리청정기(1749~1762)다. 영조는 15세의 세자에게 표면적으로는 정사를 맡겼지만 실제로는 인사권·병권·변방 등은 자신이 장악하고, 매월 6회의 차대(次對)를 통해 모든 결정을 재가했다.

이 제도 안에서 영조의 가스라이팅은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첫 번째 층위는 결정의 모순이다. 영조는 세자가 스스로 정사를 결정하면, “그런

일을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결단하였다!”라며 꾸짖었고, 결정 전에 부왕에게 의견을 구하면,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라고 꾸짖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이 되는 이중 구속의 형태다. 영조의 병환 시 세자가 문안을 여쭙어도 부드럽게 보지 않아 세자는 무서워하며 문안 가기를 갑갑해했다.

두 번째 층위는 천재지변의 책임 전가다. 영조 36년(1760) 여름의 가뭄에 대해서는, “소조(小朝; 세자)가 덕을 쌓지 않은 탓이다.”라며 꾸짖었다. 이로 인해 세자는 날이 흐리거나 천둥만 쳐도 부왕의 비난이 쏟아질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왕이 부덕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유교적 통념을, 영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자에게 적용했다. 천재지변을 자신의 부덕(不德)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본래 군주의 자기 성찰 윤리다. 그러나 그 윤리적 무게를 대리청정을 하는 세자에게 전가하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가스라이팅이 된다. 자연 현상을 자기의 도덕적 결함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도세자에게 방어 불가능한 이중 구속이 부과된 것이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비가 오는 것이 자신의(세자) 부덕 때문이라는 부왕의 단정을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왕 앞에서 분명히 아는 것도 쭈뼛거리며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 입대(入對) 자체가 공포가 되는 상태는 이러한 이중 구속이 신체에 미치는 신경적 위축의 기록이다. 『한중록』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화증(火症)이라는 단어는 이 위축과 억압이 신체적 폭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³³⁾ 이는 3장에서 살펴본 단계적 동결반응 모델에서 처리되지 못한 에너지가 내부로 굴절되어 축적되다가 임계점을 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1757년부터 세자의 방어막이었던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이어 별세하며 세자가 부왕의 가스라이팅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중록』에서 기록하는 사도세자의 의대병(衣櫛病), 곧 옷을 갈아입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그에 수반된 폭력 및 나인들에 대한 살해는 이 임계점이 신체적 증상으로 외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³⁴⁾

33) 영화 『사도』(2015)에서도 이러한 위축과 억압이 감정적·신체적 폭발로 나타나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

같은 구조의 변주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2016)³⁵⁾에서도 확인된다. 코우즈키라는 인물은 유봉과 동일한 구조 위에 있다. 그는 히데코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변태적 미학을 완성하기 위한 낭독 인형으로 도구화했다. 자신의 수집품과 도서관, 그리고 히데코의 신체와 목소리가 미학적 세계를 구성하는 도구들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코우즈키의 권력은 유봉보다 더 정교하게 제도화된 형태다. 그의 권력은 일본 제국주의적 수집 문화, 법적 후견인 지위, 그리고 음란 도서 낭독회라는 폐쇄적 남성 커뮤니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양과 미학의 언어를 넘어 식민지 권력과 가부장제가 결합된 구조적 형태를 띤다. 겉으로는 귀족 영애로 우아하게 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히데코는 어린 시절부터 낭독회 훈련을 강요받았으며, 고모(사쿠라 부인) 역시 같은 착취 구조의 피해자였다가 그 수행자로 편입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히데코의 성장 환경은 반복적 착취의 세습 구조 안에 놓여 있었다. 그 내면에 쌓인 자살 충동과 공허함은 자율성과 애착이 동시에 박탈당한 뇌가 도달하는 생물학적 실조 상태로 읽힌다.

다만 『아가씨』 서사의 흐름은 두 여성의 연대를 통한 탈출과 해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서편제』와 다르다. 코우즈키는 교양과 미학이라는 세련된 언어로 수집과 감상의 대상으로서 히데코를 위치시키는, 구조적으로 정교한 도구화를 수행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서편제』의 유봉과 『아가씨』의 코우즈키를 나란히 놓을 때 드러나는 것은 한국 문화가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온 패턴이다. 예술·교양·전통이라는 언어가 이러한 도구

34) 『한중록』에서 의대병은 옷을 입지 못하여 한 번에 10~30벌을 지어 바치고 조금만 잘 못해도 사람을 상하게 하는 괴질로 표현되어 있다. 사도세자에게 부과된 이중 구속의 정밀한 분석, 특히 영조의 자기애적 권력 역동과 정조의 삭임이 어떻게 한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신경적 귀결로 분기되는가의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별도의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정병설의 『권력과 인간』이 있다. 정병설은 ‘광증설’과 ‘당쟁희생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사료를 교차 검증하여 영조의 정치적 판단과 권력 논리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병설, 『권력과 인간 :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문학동네, 2012.

35) 박찬욱 감독, 『아가씨』, 모호필름·윙필름, 2016. 원작은 Sarah Waters, Fingersmith, Riverhead Books, 2002.

화를 은폐하는 장치로 기능할 때, 그것은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가스라이팅이 된다.

지금까지 자기애적 권력 역동이 부모-자녀, 상사-부하, 스승-제자, 군주-신하, 예술가-도구화된 타자라는 다섯 관계 형식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는가를 확인했다. 각각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조건부 애착, 가스라이팅, 탈출 봉쇄라는 동일한 형태를 띤다. 이러한 동일성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관계 형식 안에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많은 경우 가해자 역시 동일한 구조 안에서 피해자였다는 점이며, 이는 가해-피해의 이분법적 구도보다 구조 자체의 재생산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 가해 구조 위에 예술·교양·전통·지식 등 미화의 언어가 덧씌워질 때, 가해자는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기 어려워지며, 피해자조차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정확히 명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한(恨)이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자신조차 자신의 고통을 정확히 명명할 수 없는 정서로 누적된 근본적인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은 천이두, 김열규 등 기존 논의가 규정해 온 것처럼 민족적 정서의 본질이라고 보다는, 유사한 가해 구조의 다양한 변주가 미화의 언어로 덮여씌워진 채 누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곧 이 미화의 언어를 거두어내는 것이 한 담론의 다음 단계 과제임을 시사한다. 가해를 가해로 명명할 수 있을 때에야, 한은 비로소 해소를 위한 첫 조건이 마련되는 정서가 될 수 있다.

5. 이념화된 이중 구속과 한(恨)의 사회적 각인

본 장은 이중 구속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념 자체에 의해 부과되어 작동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4장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자기애적 가해자가 자신의 욕망을 피해자를 위한 헌신의 언어로 포장하여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중 구속은 가해 의도를 가진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념의 작동을 통해 같은 효과를 도출한다. 가해자가 부재할 때 이중 구속은 비가시화되며, 이 경우 인식 및 해체가 더욱 어려워진다. 본 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러한 이념의 내면화 기제다. 의도를 가진 인격적 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이념·서사·언어·제도가 개인에게 내면화됨으로써 가스라이팅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며, 그 행위 주체는 비인격적 구조 자체가 된다. 나아가 인격적 가해자에 의한 이중 구속과 이념의 내면화 기제에 의한 이중 구속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3장에서 살펴본 공격자와의 동일시 메커니즘에 따르면, 이념을 내면화한 피해자는 다음 세대에 대해 다시 인격적 가해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념의 작동은 자기애적 권력 역동이 세대를 가로질러 재생산되는 경로이기도 하다.

이 비가시화의 가장 정교한 형태가 충(忠)·효(孝)·열(烈)의 이념적 작동이다. 오륜(五倫)의 일부인 군신유의(君臣有義)·부자유친(父子有親)·부부유별(夫婦有別)은 쌍방의 의무를 필수로 하는 상호호혜적 구조다.³⁶⁾ 쌍무(雙務) 관계에서는 이중 구속이 발생할 수 없다. 이 관계 내에서 ‘부친은 자(慈)하고 자식은 효(孝)하며, 군주는 의(義)롭고 신하는 충(忠) 한다[父慈子孝, 君義臣忠].’ 각자의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는 이 구조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띤다.

먼저 군신 관계에서 충은 군주의 불의(不義)에 대해 신하가 간쟁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복종은 진정한 충이 아니다. 『맹자』는 신하가 군주의 잘못에 대해 거듭 간(諫)해야 하며, 그것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왕실 혈족인 신하[貴戚之卿]는 군주를 교체하며[易位], 다른 성의 신하[異姓之卿]는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³⁷⁾ 「이루(離婁)」에서는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하가 떠나려 할

36) 『禮記』, 「禮運」, “何謂人義? 父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長惠, 幼順, 君仁, 臣忠. 十者謂之人義.”

37) 『孟子』, 齊宣王問卿. 孟子曰: “王何卿之問也?” 王曰: “卿不同乎?” 曰: “不同. 有貴戚之卿, 有異姓之卿.” 王曰: “請問貴戚之卿.” 曰: “君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易位.” 王勃然變乎色, 曰: “王勿異也. 王問臣, 臣不敢不以正對.” 王色定, 然後請問異姓之卿. 曰: “君有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去.”

때, 군주가 그를 붙잡아 가두고, 가려는 곳마다 괴롭히며, 집과 밭을 빼앗는다면, 맹자는 그런 군주를 원수[寇讎]라고 단언한다.³⁸⁾

아랫사람에게 간쟁의 의무가 있는 것은 부친이나 임금도 인간이기에 항상 의롭고 정당한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대(漢代)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삼강이 정식화되고 『백호통의(白虎通義)』를 거치면서, 쌍무적 성격을 지녔던 이 관계는 부위자강(父爲子綱)·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처강(夫爲妻綱)이라는 일방적 질서로 변질되었다.³⁹⁾

특히 강(綱)이라는 글자는 그물의 버리를 뜻하는데, 그물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줄을 가리킨다. 오륜(五倫)의 룬(倫)이 인간 사이의 쌍방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과 달리, 강(綱)은 처음부터 하나가 전체를 지배한다는 위계적 통제를 글자 안에 내장하고 있다. 특히 삼강이라는 명명 자체에 이미 오륜의 관계 언어를 벗어나 지배-종속의 단방향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충(忠)에서는 간쟁이 빠지고 순(順)이 들어섰고, 의(義)가 휘발되었다. 이러한 왜곡 안에서 충은 군주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충(不忠)으로 단죄되는 구조가 되어 신하의 자율적 판단이 제거된다. 간쟁의 의무가 휘발되니, 신하의 간쟁은 반론이자 대드는 것, 곧 불충으로 단죄된다. 본래의 충이 군주의 불의(不義)를 견제하는 윤리적 장치였다면, 삼강(三綱)의 충은 군주의 불의에 종속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된 것이다.

효 역시 일방적인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부친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 자식은 반드시 간쟁(諫諍)해야 한다. 『효경(孝經)』 〈간쟁장(諫諍章)〉에서도,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

38) 『孟子』, 「離婁」, “今也爲臣, 諫則不行,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 遂收其田里, 此之謂寇讎, 寇讎何服之有?”

39) 쉬푸관(徐復觀)은 『양한사상사(兩漢思想史)』에서 ‘맹자가 말한 간쟁과 거취의 권리는 한대 삼강 체계를 거치며 구조적으로 소거되었다.’고 지적했다. 황권제(黃俊傑) 역시 이에 동의하여, 『맹학사상사론(孟學思想史論)』에서, ‘삼강 아래에서 신하의 의문 자체가 불충으로 자동 번역되는 윤리적 폐쇄 회로가 완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있으면 그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라고 하며, ‘의롭지 못한 일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故當不義, 則子不可以不爭於父.]’고 명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자가, “부모를 섬기되 부드럽게 간하라.[事父母幾諫.]”⁴⁰⁾라는 말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효가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원칙을 지키는 간쟁을 통해 진정한 효를 찾으라는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효 역시 삼강의 변질을 거치며 간쟁 구조가 소거되었다. 자(慈)가 빠지고 효(孝)만 남으며,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으로 해석되며, 부모의 자(慈) 의무가 사라지고 자식은 불의한 처사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만 짊어진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니 무조건 옳다는 논리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념적 구속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도덕적 결함으로 단죄하는 메커니즘이다. 역시 간쟁의 의무가 휘발되니, 자식의 간쟁은 반론이자 대드는 것, 곧 불효로 단죄되었다. 이로써 삼강 체계는 간쟁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삼는 윤리적 폐쇄 회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변질된 효 이념이 인격적 가해자 없이도 개인에게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심청전』이다. 심봉사는 자기애적 가해자가 아니다. 그는 심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애초에 딸의 희생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공양미 삼백 석의 약속도 심봉사가 충동적·우발적 상황에서 한 것이다. 대표적 판본(완판 84장본)을 기준으로, 심청은 약속의 당사자도 아니다. 근대적 계약론으로 보면 심청에게는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청은 그 약속을 자기가 한 것처럼 떠안는다.

여기서 효 이념의 작동 방식이 드러난다. 핵심적인 층위는 효 이념이 약속의 이행 주체를 부친에게서 자녀에게 이전시킨다는 데 있다. 부모가 진 빛은 자녀의 빛이라는 전제가 효의 사회적 작동 원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부채 상속이나 연좌제적 의무 구조와 같은 조선 사회의 관행

40) 『論語』, 「里仁」,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과도 맞닿아 있다. 다음으로 약속의 내용이 이미 효의 회로 안에 들어와 있다. 부친의 신체 개안(開眼)을 위한 공양은 효의 가장 강한 형태[身體髮膚, 受之父母의 회복]와 직결되므로, 우발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무시하기 어렵다. 마지막은 그 약속이 부친의 공양이라는 종교적 행위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초월자를 매개로 한 공덕의 계약에 편입되는 순간 그 약속을 무효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세 층위가 결합하면,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력한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효 이념의 비인격적·구조적 강제력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심청을 인당수로 향하게 한 이중 구속은 결국 효라는 이념 자체가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청이 직면한 이중 구속의 구조는 자신의 생존을 선택하면 효의 이념에 비추어 도덕적 결함을 범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인정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효를 선택하면 자신의 생존이라는 근원적인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자율성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며, 이 상황에서 이탈할 수도 없다. 효 이념이 사회 전체에 분산 부과된 도덕적 절대성으로 작동할 때, 그것을 벗어날 외부란 곧 인간 공동체의 밖이 된다.

기존의 효론에서,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 몸을 인당수에 던진다. 아버지를 위하는 것도 효이고 몸을 보존하는 것도 효이니, 심청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효의 논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심봉사는 제물이 되려는 딸을 말렸고, 그럼에도 심청은 물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내면화된 이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념화된 효는 제발 죽으려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뜻마저 넘어선다. 딸의 죽음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은 가해자 없는 가해의 정밀한 작동이다.

주목할 것은 이 이중 구속에는 가해자가 없다는 점이다. 심봉사는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고, 화주승도 없었으며, 마을 공동체도 심청에게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중 구속을 부과하는 것은 효 이념의 구조적·담론적 작동 자체다. 심청은 이 이념을 자기 서사로 내면화한 결과,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자율성[생존]을 효[애착의 도덕적 형식]에 굴복시켰다. 특정한 인격적 가해자가 없는데도 효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오히려 가해자의 부재가 그 작동을 더욱 비가시적으로 만든다. 가해 의도를 가진 인격을 색출하는 것만으로는 이념화된 이중 구속을 해체할 수 없으며, 자율성을 포기한 신경계의 동결반응이 지극한 효성으로 명명될 때, 그 명명은 동결을 미덕으로 정당화함과 동시에 동일한 동결을 다음 세대에 권장하는 이념적 구속 기제로 작동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층과 효의 이념은 비록 왜곡되었더라도 그 대응항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한다. 군위신강이라 해도 인군(仁君)의 이상은 명목상 유지되고, 부위자강이라 해도 자부(慈父)의 이상은 명목상 유지된다. 그러나 부부 관계에서는 열(烈)에 대응하는 남편의 의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삼강의 왜곡 가운데 가장 비대칭적·기형적으로 작동한 것이 부부 관계이다. 오륜이 말한 것은 ‘별[夫婦有別]’이지 열이 아니다. 별의 본래 의미는 역할의 분담으로, 남편과 아내의 기능적 분업에 가깝다. 그 자체에는 위계나 종속을 전제하지 않았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의 십의(十義)에서도 부부의 의무는 부의(夫義)와 부청(婦聽)으로 제시된다. 이 단계에서도 열의 흔적은 없다.

열 형성의 발단 역시 한대(漢代)에 나타난다. 한대에 삼강(三綱)의 체계가 정식화되면서 부위처강(夫爲妻綱)이 등장하고, 부부 관계는 일방적 위계로 재편된다.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에서는 희생적 여성상을 표창하는 전통을 확립했다. 이어 후한(後漢)의 반소(班昭)는 『여계(女誡)』에서, ‘아내에게는 두 번 시집간다는 법문(法文)이 없다.’⁴¹⁾고 하였다. 그럼에도 아직은 생명보다 절개가 무겁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 변곡점은 송대(宋代) 정이(程頤)의, ‘굶어 죽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절개를 잃는 일은 지극히 큰 일이다.[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에서 비롯된다.⁴²⁾ 주희는 해당 구절을 『근사록(近思錄)』에

41) 『周易』, 「恒卦」, “婦人貞吉, 從一而終也.”; 班昭, 『女誡』, “夫有再娶之義, 婦無二適之文.”

42) 『河南程氏遺書』 卷22, “或有孤孀貧窮無託者, 可再嫁否?” 程頤曰: “只是後世怕寒

실어 대중화하고 『가례(家禮)』를 통해 제도화를 시도하면서 부녀의 정절은 생명보다 무거운 우주적 명령으로 격상된다. 명청(明清) 시기와 조선 후기에 정표절열(旌表節烈) 정책이 시행되자, 열은 국가 표창 제도와 결합하였다.⁴³⁾

이 극단적 비대칭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체계가 바로 열녀문(烈女門)이다. 열녀로 정려(旌閭)되면 가문에 부역(賦役)·군역(軍役) 면제, 면천(免錢)·복호(復戶), 진휼(賑恤) 우선권,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반(婚班) 가치의 상승이라는 다양한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 즉 열녀문은 상징 자본만이 아니라, 확실한 경제적·사회적 자본이었다. 과부에게 자살을 권할 합리적 동기가 제도적으로 부여되어 있었기에,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죽음을 강요하지 않았을지라도 시택의 침묵이나 친정의 외면, 마을의 기대가 결합된 애매한 분위기는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매우 정교한 이념적 구속의 형태다. 표면적으로는 과부의 자발적 선택이지만, 실재는 제도적으로 설계된 자살 강요 시스템이었다.⁴⁴⁾

이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내부에서도 존재했다. 정약용은 「열부론(烈婦論)」에서 따라 죽는 것은 열(烈)의 본의가 아니며 오히려 불인(不仁)이라 비판했다. 시부모가 살아 계신데 며느리가 따라 죽음은 효(孝)를 어기는 것이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따라 죽음은 자(慈)를 어긴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열(烈)은 살아남아 다른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논증한다.⁴⁵⁾ 박지원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에서 조선의 열녀

餓死, 故有是說. 然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

43) Susan Mann,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陳喬見, 「早期中國的『節義』觀念—以『列女傳·節義傳』爲中心」, 『杭州師範大學學報』2020年第5期. 수전 맨은 본서에서 청대 강남 지역의 성별 관계를 최초로 분석한 연구자로, 기존의 ‘여성 억압사’ 서술을 비판하고 여성을 사회·경제·문화 변화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또한 진차오젠은 본 논문에서 유향(劉向) 『열녀전』 「절의전(節義傳)」의 분석을 통해 절의(節義)의 본래 의미는 성별을 초월한 보편적 윤리였음을 규명했다. 정사 『열녀전』이 후대로 갈수록 유향의 본래 취지에서 이탈하여, 열녀(列女)가 열녀(烈女)로 변하고, 절의(節義)가 절열(節烈)로 퇴화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44) 강명관, 『열녀의 탄생: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45)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11, 「열부론」.

풍속이 중국보다 과잉되었음을 조선의 특이성으로 명시하면서, 이 과잉이 어떤 구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그는 성리학적 명분이 극단화된 조선 후기 사회에서 국가가 충신과 열녀를 적극 표창한 결과, 젊은 여성들이 억지로 순절하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던 현실을 폭로한다. 열녀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생명보다 추상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구조였다. 그는 ‘왕왕 한낮의 촛불처럼 무의미한 여생을 스스로 끝내 버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뛰어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기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 열녀는 열녀라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⁴⁶⁾라고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산 자가 어찌 죽은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는 질문은 인본주의적 생명관에서 출발한 근본적 문제 제기다. 정약용이 순절 자체를 불인·불효로 비판했다면, 박지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을 택하지 않은 삶, 즉 동전을 굴리며 하룻밤을 건너낸 어머니의 삶을 정면에 내세운다. 이를 통해 그는 산 자의 삶 그 자체가 열(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열녀 담론의 무력화를 시도했다.⁴⁷⁾

지금까지 살펴본 충·효·열의 이념적 왜곡과 열녀문의 제도적 작동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자살을 통해 열녀가 된 과부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시댁인가, 친정인가, 마을인가, 국가인가, 열(烈) 이념 자체인가. 또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이처럼 가해자의 특정 인격이 분명히 지목되지 않을 때, 그 가해는 비가시화된다. 그리고 비가시화된 가해는 해체가 더욱 어려워지며, 이처럼 이념화된 보이지 않는 이중 구속은 피해자 자신이 구속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열(烈) 이념이 제도나 서사뿐 아니라 일상 언어 차원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은 속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46) 朴趾源, 『燕巖集』 卷1, <烈女咸陽朴氏傳>, “往往自滅晝燭, 祈殉夜臺, 水火鴛繡, 如蹈樂地, 烈則烈矣, 豈非過歟?”

47)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연구』 제32집, 2011.

도 서리가 내린다.’에는 동시에 작동하는 다섯 가지 층위가 단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

첫째는 우주론적 전치(轉置)이다. 수잔 손탁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사회적 불의가 자연적 현상으로 재명명될 때 문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탐구가 철회된다고 경계한 바 있다.⁴⁸⁾ 이 속담은 은유의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한이 기상 현상으로 전치되는 순간, 한을 야기한 행위 주체인 가해자와 가부장제·시집 등의 구조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한은 처벌해야 할 가해자도 시정해야 할 제도도 없는 익명적 자연력으로 변질되며, 이로써 문제의 원인을 묻고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 자체가 봉쇄된다.

둘째는 위협의 역전(逆轉)이다. 농경 사회에서 오뉴월에 내리는 서리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엄청난 재앙이다. 즉 여자가 한을 품으면 ‘너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굶주리게 된다.’는 위협을 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피해 입은 여성의 고통이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재정의 된다. 이념적 구속의 가장 정교한 형태다. 피해자의 고통 자체를 가해 행위로 뒤집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조차 죄책감의 구조 안에 가두는 메커니즘이다. 윌리엄 라이언은 『피해자 비난하기』에서 미국 사회가 빈민의 고통을 ‘빈민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방식을 분석했는데,⁴⁹⁾ 이 속담은 그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48) Susan Sontag, 『Illness as Metaphor』, Farrar, Straus and Giroux, 1978. 손탁은 결핵과 암이라는 질병이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나 형벌의 징후로 해석되는 은유적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질병에 부과된 은유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질병의 실질적 원인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탐구를 차단한다. 본문에서 원용한 사회적 불의를 자연적 현상으로 재명명하는 전략은 이러한 은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으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은폐하고 책임의 소재를 익명화하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49) William Ryan, 『Blaming the Victim』, Pantheon Books, 1971. 라이언은 미국 사회가 빈곤·범죄·교육 실패 등의 사회적 문제를 구조적 원인에서 분리하여 피해 당사자의 결함으로 귀속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을 ‘피해자 비난하기(blaming the victim)’로 개념화했다. 이 메커니즘은 피해자를 병리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고,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속담의 논리는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행위마저 죄악화한다는 점에서 라이언의 사례보다 더 정교한 억압 구조를 내포한다.

셋째는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의 이중 구속적 효과의 내재다. 이 속담 안에는 모순된 두 층위의 메시지가 공존한다. 내용 메시지의 층위에서는 여성의 한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리게 할 정도로 깊고 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발화가 놓이는 맥락의 층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한을 품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동시에 전달된다. 인정과 억압이 하나의 발화 내에 공존하되, 그 모순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은 자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책감의 구조 안에서 처리하게 되며, 모순을 모순으로 의식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이 속담이 수행하는 이중 구속적 효과다.⁵⁰⁾

넷째는 ‘품다’라는 어휘의 담론적 공모다. 어휘 선택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특정 세계관을 자연화한다. 한에는 한을 느끼다, 한을 갖다, 한을 터뜨리다 등의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속담은 품다를 선택했다. 품다는 가슴 안에 내장(內藏)하는 것이지 밖으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품다는 소중히 간직한다는 뉘앙스도 지닌다. 이 이중성은 주목할 만하다. 한을 억압하는 동시에 그 한을 감정적으로 승인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이중 구속적 효과를 어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수행하는 것이다. 어휘 선택만으로 이미 한의 외화나 표출 가능성이 제거되어 있다. 곧 한을 품었다라도 외부에 드러내지 말고 스스로 삭여내라는 명령이 어휘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

다섯째는 한 생산-억압의 폐쇄 회로이다. 앞서 언급한 네 층위가 결합하면, 여성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행동은 한의 지속적 내장이다. 표출은 우주적 재앙으로 협박당하고, 이미 품고 있는 한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50) 이 속담은 ‘[만약]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협박적 조건문의 형식을 취한다. 조건문의 주어는 오직 ‘여자’이며, 한을 발생시키는 가부장적 구조나 가해자는 호명되지 않는다. 피해자(여성)에게 ‘내가 한을 느끼는 행동 자체가 공동체 전체의 재앙을 부른다’고 경고함으로써, 개인의 감정 통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만약 진정 ‘한 없는 세상’을 지향했다면, “모두가 함께 한을 만들지 않으면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처럼 화자를 포함한 공동 책임의 구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속담은 한의 생산 조건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여성의 반응만을 문제 삼는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정체성의 부정이 되며, 외부에 대한 호소는 가해자 부재로 인해 무효화된다.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억압된 정서는 신경계 안에 정체되는 것이다. 주디스 허먼이 『트라우마와 치유』에서 분석했듯이,⁵¹⁾ 이렇게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정서는 신경계 안에 정체되어 신체화·만성화된다. 에이버리 고든은 이를 ‘유령적 존재(haunting)’로 표현되지 못하고 떠도는 정서가 개인과 집단의 무의식을 점유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⁵²⁾

이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속담이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대한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이다. 이 속담은 귀와 입과 눈의 세 가지 감각 봉쇄를 명시한 9년 버전과,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의 6년 버전으로 전승된다. 이는 시집은 며느리가 적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현하면서, 단순한 속담을 넘어 시집살이를 견뎌내는 생존 전략으로 기능해 왔다. ‘[쫓겨나기 싫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보아도 못 본 체하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라.’는 가부장제의 규범이 처세의 지혜로 미화되어 며느리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규범의 정밀함은 두 차원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신경생리학적 구조와의 유사성이다. 청각, 발화, 시각은 트라우마 신경생물학에서 사회적

51)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1992), pp. 33–34, 42–46. 허먼은 탈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장기적 포획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신경계 내부에 정체되어 신체화 증상, 정서적 마비, 만성적 긴장 상태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단순한 정신적 충격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통제력 상실과 타인과의 단절을 핵심 경험으로 삼는다. 본문에서 서술한 가부장제라는 포획 구조 속에서 한의 표출이 봉쇄될 때 그것이 사회적 항의가 아닌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마비로 전환되는 과정은, 허먼이 분석한 지속적 포획 상태에서의 트라우마 반응에 해당한다.

52) Avery F. Gordon, *Ghostly Matters: Haunting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2nd ed., 2008), p. xvi, p. 8. 고든은 ‘호온팅(haunting)’을 억압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폭력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개념화한다. 그것은 착취나 트라우마 자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재현되거나 발화되지 못한 채 떠도는 정서가 개인과 집단의 무의식을 점유하는 특수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성의 한은 공식적 서사나 제도적 표창으로 소거되지 않고 발화되지 못한 채 집단적 무의식 속을 떠도는 유령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고든의 호온팅 개념과 조응한다.

관여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술된다. 단계적 동결반응 모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억압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동결·해리 반응으로의 후퇴다. 머느리 9년 속담은 구조적 유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신경계의 사회적 관여 시스템 전체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이념적 구속 기제로 읽힌다. 이는 물론 실증적 인과관계의 주장이 아니라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해석적 유비다. 다만 이 규범이 신경생리학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도 직접 강요하지 않지만, ‘쫓겨나기 싫다면’이라는 숨겨진 조건어와 함께 전승되는 이 규범은 머느리의 신경계에 각인되는 습관으로 작동한다.

둘째는 의례적 의미이다. 9년은 한국 전통 상례(喪禮)의 기본 단위인 3년의 세 배수다. 이를 은유적으로 독해하면, 머느리는 자신의 청각을 3년 상(喪)하고, 자신의 언어를 3년 상하며, 자신의 시각을 3년 상한다. 즉 9년은 머느리가 자신의 청각·언어·시각이라는 주체성의 세 축을 차례로 상실하고 애도하는 의례적 기간으로 읽힌다. 머느리는 이 의례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착한 머느리’라는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지만, 그 인정의 대가는 자신의 청각·언어·시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 살해의 단계적 의례인 동시에, 가부장제가 물리적 폭력 없이 피해자의 신경계 자체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상징적 폭력의 결정체다. 이 두 속담은 사회가 한이 형성될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형성된 한이 외부로 방출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이념적 구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외부로의 모든 출구가 봉쇄된 채 신체 내부에 맺힐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적 한의 신체화[화병, 가슴 답답함, 만성 통증]는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이념적 구속의 작동을 가장 압축적으로 미화하는 술어가 삭임이다. 앞서 천이두의 삭임 분석을 검토하면서, 삭임이 자동사 ‘삭다’와 타동사 ‘삭이다’의 구별 위에서 피해자의 주체적 의지를 읽어내는 시도였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삭임은 신경계의 항복 상태에 미덕의 외피를 입히는 언어적 장치다. 개인에게 발생하는 가슴이

씩어 문드러지는 듯한 동결반응이 집단 수준에서 아름다운 인고로 명명될 때,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피해자는 자신의 마비 상태를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부덕(婦德)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정작 그 마비 상태를 만든 문제적인 구조에 대하여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전통으로 재해석된다. 즉 삭임의 언어가 억압을 발효로 미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념적 구속이 된다. ‘참아야 한다, 표현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수백 년에 걸쳐 가해질 때, 이 압력은 개인의 신경계 수준을 넘어 집단의 정서적 기본값 자체를 변형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은 가해자가 부재해도 자기 서사로 내면화되어 작동한다. 이념화된 이중 구속이 사회적으로 보존되어 온 구조는 개별 자기 서사의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 왜곡된 충·효·열의 이념을 내면화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도덕적 결합으로 인식하는 자기 서사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기 서사는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⁵³⁾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해 온 며느리가 세월이 흘러 더 가혹한 시어머니가 되는 식이다. 이는 ‘시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이 있다’거나 ‘며느리 시절 고생한 시어머니가 더하다’는 한국 속담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익숙한 패턴으로, 특정 개인의 자기에적 가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화된 이중 구속이 자기 서사로 내면화되었다가 다음 세대에 가해 구조로 외화되는 메커니즘이다. 즉 이념의 내면화는 자기에적 가해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 역동이 세대를 가로질러 재생산되는 경로로 기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한(恨)은 민족적 정서의 본질이 아니라, 본래 쌍무적 관계였던 충·효·열이 일방적 복종 체계로 왜곡되면서 사회 제도와 일상 언어와 자기 서사의 세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누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가해자를 인격으로 지목 가능한 자리에서는 앞서 분석한 자기에적 권력 역동으로 작동하고, 가해자를 인격으로 지목 불가능

53) 페렌치(Sándor Ferenczi)와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가 정식화한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를 가리킨다.

한 자리에서는 이념의 자기 완결적 작동으로 나타난다. 두 양태 모두 동일한 단계적 동결반응을 거쳐 한과 화병으로 귀결된다. 한 담론이 새롭게 진입해야 할 단계는 이 이중 구속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한이 민족 정서로, 열(烈)이 지조로, 삭임이 발효로, 효가 지극한 도리로 호명되는 일련의 미화적 언어를 거두어야 진실이 드러난다.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을 때에야, 한은 비로소 해소 가능한 정서가 될 수 있다.

6. 맺음말

본고는 한 담론에 가해자의 인격적 역동과 이념화된 이중 구속이라는 두 분석의 축을 추가하였다. 미학적·정신의학적·사회학적 담론이 피해자 쪽에만 놓여 있던 분석의 무게를, 자기애적 가해자와 그것을 보존해 온 이념 구조 쪽으로 옮겨 본 것이다. 억압의 원인을 거대 구조로 설명하는 순간 구체적 가해 인격이 더욱 깊이 숨어드는 역설을, 미시적 분석 단위를 보충함으로써 넘어서고자 했다. 본고에서 활용된 이중 구속과 신경생물학적 동결이라는 분석틀은 확정된 메커니즘이 아니라 한이라는 정서를 설명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석 도구로 판단된다.

다만 본고는 이론의 구성에 집중한 만큼 텍스트 분석은 구체적이지 않고, 화병 환자와 자기애적 관계 경험의 임상적 상관관계 역시 엄밀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향후 화병과 자기애적 권력 역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제 간 임상 연구 및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본격적 서사 분석, 그리고 충·효·열이라는 이념의 구조적 억압이 집단적 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영향의 추적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한 연쇄를 끊는 작업은 신체에 고착된 생존 에너지의 방출과, 가스라이팅에 의해 파괴된 현실 지각의 회복을 함께 요구한다. 이는 신체 중심 트라우마 치료와 가해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 두 차원의 작업이 맞물리는 지점이 공격자와의 동일시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가

해 구조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를 자기 서사로 내면화하는 대신 그 논리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끊고 세대적 연쇄를 차단하는 토대가 된다. 즉 개인의 신경학적 치유와 가해 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회구조적 변혁의 대안이 아니라 그 변혁이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 관계와 자기 서사의 형성에서의 개입이다. 이러한 개별적 단절이 누적될 때, 그것은 담론의 차원에서조차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아름다움의 언어로 명명해 온 시선은,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 구조를 숨기는 효과를 동반해 왔다. 가해 구조를 인식한 개인들이 늘어날수록, 한을 민족 정서로, 열을 지조로, 삭임을 발효로 호명해 온 미화의 언어는 그 설득력을 잃어간다. 그 시선을 상대화하고 은폐되어 온 가해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한 담론을 확장하는 작업이며, 한의 연쇄를 끊어내는 조건이다. 고통을 더 잘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해한이 아니다.

참고문헌

<고전 문헌>

『禮記』.

『論語』.

『孟子』.

『孝經』.

丁若鏞, 『與猶堂全書』(한국고전번역원).

朴趾源, 『燕巖集』(한국고전번역원).

<단행본>

강명관, 『열녀의 탄생: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게랄트 휘터 저, 이지운 옮김,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매일경제신문사, 2021.

그레고리 베이트슨, 『마음의 생태학』, 박대식 옮김, 책세상, 2006.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안나 프로이트, 『자아와 방어기제』, 김건중 옮김, 열린책들, 2015.

안병무,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한국신학연구소, 1989.

이청준, 『가해자의 얼굴 :李清俊 소설집』, 중원사, 1992.

_____, 『서편제』, 문학과지성사, 2013.

정미숙 외 4명, 『한강,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 더스토리, 2016.

정병설,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문학동네, 2012.

한민, 『신명의 심리』, 21세기북스, 2009.

<논문>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연구』 제32집, 2011.

김종주, 「한의 정신분석」, 『코리아이마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1998.

김주휘, 「르상티망(Ressentiment)과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대한 재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0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방영심·이정화, 「한국어에 나타나는 恨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의 미학』 22집, 2007.

이병혁,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恨(恨)」, 『사회와 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정금철, 「恨의 情緒와 詩學—金素月·徐廷柱의 詩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9집, 1986.

<국외 논저>

- Kohut, H.,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7, 1972, pp. 360 - 400.
- Calef, V. & Weinshel, E. M., 「Some Clinical Consequences of Introjection: Gaslighting」,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50(1), 1981, pp. 44 - 66.
- van der Kolk, B. A., 「The Body Keeps the Score: Memory and the Evolving Psychobiology of Posttraumatic Stres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5), 1994.
- Jackson, J. H., 「The Croonian Lectures on Evolution and Dissolution of the Nervous System」, 『British Medical Journal』, 1884.
- Grossman, P., 「Fundamental challenges and likely refutations of the five basic premises of the polyvagal theory」, 『Biological Psychology』 180, 2023.
- Mann, S.,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陳喬見, 「早期中國的節義觀念－以『列女傳·節義傳』爲中心」, 『杭州師範大學學報』, 2020年 第5期.
- 徐復觀, 『兩漢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 黃俊傑, 『孟學思想史論』, 商務印書館, 2024.

<영화>

- 임권택 감독, 『서편제』, 태흥영화사, 1993.
- 이준익 감독, 『사도』, 외유내강·쇼박스, 2015.
- 박찬욱 감독, 『아가씨』, 모호필름·웅필름, 2016.

Abstract

The Structure of the Double Bind Inherent in the Emotion of Han(恨) -Focusing on Narcissistic Power Dynamics

Kim, Dong-Ge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why the discourse on han (恨) has long obscured its causes, locating the answer in the structure of that discourse itself. Previous studies have made meaningful contributions at the aesthetic, psychiatric, and sociological levels. Building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offers a new analysis of the generative pathways and mechanisms of han at the level of the double bind and the personality dynamics of the perpetrators who impose it.

To this end, three theoretical strands are combined. The first is Bateson's theory of the double bind, which describes a relational structure in which attachment and autonomy cannot be simultaneously satisfied. The second is neurobiological research on the somatization of trauma. The third is the psychological theory of power dynamics in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Applying this framework to relationships such as parent - child, supervisor - subordinate, teacher - disciple, and ruler - vassal, the study identifies a structure in which the perpetrator fulfills narcissistic desires under the pretext of acting for the victim's sake. It further examines how the double bind became socially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by which the Three Bonds (三綱) rigidified originally reciprocal relational ethics into a system of unilateral submission.

While han (恨) may be regarded as the essence of Korean aesthetic sensibility, it can equally be understood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experienced by victims whose autonomy has been stripped away within structures shaped by narcissistic power dynamics. Traditional modes of resolving han (解恨) have failed to break its intergenerational chain because, in seeking to heal the victims, they have not illuminated the perpetrators. Moreover, an ideological system that has moralized unilateral submission has made it difficult to recognize structures of harm as harm in the first place.

Keywords: han(恨), hwa-byung(火病), double bind, narcissistic power dynamics, gaslighting

김동건

소 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전자우편: sky200106@aks.ac.kr

논문투고일 2026. 05. 10 / 심사완료일 2026. 06. 12 / 게재결정일 2026. 06. 14